

창간호

1988년 1월 23일

- 1면 : 그림 「찬바람 부는날」
- 2면 : 우리그림 창립
- 3면 : 사실, 창간사
- 4면 : 근로자미술교실, 안양문화

발행인 : 홍대봉/발행처 : 그림사랑동우회 우리그림/발행일 : 1988년 1월 23일/주소 경기도 안양시 안양2동 836-11, 전화 : 44-8942

- 신바람 나는 그림
- 함께 누리는 그림
- 참 삶을 지향하는 그림

찬바람 부는날

신연옥 작

찬바람 부는 겨울밤 잠든 아기를 꼬옥 껴안고서 떨고있는 노점상 아주머니의 모습은 을씨년스런 가로등의 불빛으로 인해 더욱 애처로워 보인다. 어찌면 아기의 아빠는 세식구의 밝은 내일을 위해 철야작업속에 지친 몸을 문어버린 젊은 노동자일 것이다.

이 그림은 근로자회관 미술 교실에서 배출된 한 시민의 관화 작품이다.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일상적인 서민대중의 삶에 애정을 기울이고 그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 좌절과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그림의 알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그림 창립

지난해 12월 5일 근로자회관에서 있었던 그림사랑동우회 “우리그림”의 창립행사는 지역내의 문화·노동·미술인과 시장주민 등 25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열띤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이날 6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1부 창립총회, 2부 그림굿, 3부 뒷풀이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창립전시회가 열려 이튿날인 6일까지 계속되었다

창립총회에서는 회칙의 심의 채택, 임원선출 등의 안건이 다루어졌다 채택된 회칙에 의하면 우리그림은 ‘민족미술에 대한 연구와 서민대중의 삶에 기초한 미술의 창작 및 보급을 통하여 안양지역의 건강한 미술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 목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회칙에 의해 진행된 임원선출에서는 대표에 홍대봉(불교미술연구), 부대표에 홍선웅(화가)이 선출되었으며 사무국장에는 박찬응(화가)이 임명되었다

창립총회를 마친 우리그림은 창립선언문을 통하여 우리그림이 ‘우리 삶의 터전인 안양에서 안양시민 스스로 자신의 삶과 염원을 표현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미술문화를 꽃피우고자 한다’고 하며, 서구세력의 문화적 침투에 당당히 맞서 면면히 이어온 민중의 삶 속에서 우리그림의 맥을 찾고 이를 통해 현시대에 걸맞는 미술양식을 창조하며 민중의 삶과 유리되지 않는 미술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그림굿은 우리그림이 창립행사를 위하여 공동제작한 대형 걸개그림(540×300 cm) 「열사해원도」의 내용을 굿으로 푼 색다른 행사였다.

광주민중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후 7·8월 노동자의 생존권투쟁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맥을 이으면서, 조국의 민주화와 자주화를 위해 쓰러져간 열사들의 한을 푼다는 것이 「열사해원도」의 내용인데, 이와 함께 어우러진 굿은 행사 전체를 뜨거운 분위기로 이끌었으며 참석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행사 당일인 5일에 시작하여 6일까지 계속된 창립전시회에는 우리그림 일꾼들이 제작한 그림과 회원작품 외에 안양판화회의 이야기그림, 근로자회관 미술교실을 통하여 나온 시민판화 지역 내외에서의 찬조작품 등이 함께 전시되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판화회의 이야기그림 ‘꽃겨난 임금’은 백성을 억압하고 수탈하던 임금을 백성들이 슬기를 모아 쫓아내고 백성들의 세상을 이룬다는 내용으로서 민화적 수법을 이용해 재미있게 만들어져 많은 관심을 모았다.



우리그림 회원과 그동안 관심있게 지켜보아 주신 여러분을 모시고 신년제 잔치를 벌입니다.

시간: '88년 1월23일 오후 6시~9시

장소: 우리그림 큰그림방

내용: 현관식, 총회, 신년제



▲ 정유정 작 「일하는 사람들」, 창립기념 판화로 행사 참석자들에게 증정되었다.



▲안양 판화회의 이야기 그림 꽃겨난 임금」(부분

5일 창립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마련된 뒷풀이 시간에는 미리 준비했던 떡과 막걸리를 참석자들 모두가 함께 나누며 자연스럽게 평가를 하는 시간이 되었다.

최근 지역내에서 있었던 각종 문화행사와 비교할 때 우선 행사참석자의 수가 월등히 많았으며 그에 따라 분위기 또한 고조되어 잔치로서의 창립행사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창립된 모습을 가진 우리그림이 앞으로 올바른 지역 문화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며 창립행사에서 보여 준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는 우리그림의 일을 꾸려가는 일꾼들에게 더욱 큰 과제로 주어졌다.

◀우리그림 공동제작 「열사해원도」와 어우러져 그림굿이 진행되었다.

시민미술학교개최

기간: '88년 2월 9일~3월11일(화, 금) 오후 7시30분~9시30분)

장소: 우리그림 큰 그림방

회비: 10,000 원(회원이나 10명이상 단체 접수시 7,000원)

접수처: 그림사랑동우회 우리그림 전화 44-8942)

지역문화와 우리그림 (I)

안양지역에서 문화운동의 한 부분인 미술운동을 위하여 '우리그림'이 뜨게 되었다.

안양은 우리나라를 사회·경제생활권으로 크게 나눌 때 수도권지역에 해당하는 도시이다. 서울 중심의 사고방식과 경제 정치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안양은 서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중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의 반영으로, 인구의 상당수가 외지인인 데다가 상당수가 생활근거를 서울에 갖고 있는 안양사람들 사이에는 왜곡된 번두리의식이 스며있어 자신들이 준서울사람이라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안양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공장 주변에는 많은 노동자와 그에 딸린 많은 식구들이 살고 있기도 하다. 그들의 일부는 때로 노동운동의 세례를 받아 자의식을 갖게 되고 이를 실천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두고 안양지역에서 노동운동의 성과가 상당했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안양사람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들 노동자들 또한 대부분이 소비지향의 세태에 걸맞게 소비지향의 삶을 찾아 안양 시내 변화가를 배회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의 삶에 세계의 중심이 있으며, 그 중심은 자신의 준귀함에서 비롯된다는 자존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안양지역에서, '우리그림'이 조직된 지역미술운동(지역문화운동)을 통하여 지역운동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그림'은 안양지역에서 미술운동을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우리그림'이 지향해야 할 목적, 그 무엇을 바로 '자존의 공동체'여야 할 것이다. '자존의 공동체'란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사람 사는 것답게 살고 있으며, 또 우리들끼리 오손도손 살고 있구나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사회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 낯날이 자존의 생각을 가져야 되며, 온갖 억눌림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 - 지역의 문제,

계층의 문제, 민족의 문제, 인류의 문제 등 인간공동체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고 소외시키는 문제까지가 바로 우리가 벗어나야 할 우리를 억누르는 것들이다. '우리그림'은 이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

그러나 할 일은 이렇게 크고 거창하지만 매사를 한번에 다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우리그림'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힘에 맞는 일부터 시작해서 차차 힘을 길러가면서 훗날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필요한 일은 자신들이 일할 안양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현상 파악이다. '우리그림'이 지역성에 눈을 돌린 것은 단순한 애향심이라기 보다는 지역으로서의 고유한 현장성에 눈을 돌린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기초적인 파악 없이 지역현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우리그림' 성원들의 자체교육과 토론 역시 중요한 일이다. 자체교육과 토론을 통하여 '우리그림' 성원들은 작은 경험이라도 공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자체교육의 방식에 있어서도 서로가 서로를 교육시키고 배워나감으로써 '우리그림'이 지향해야 할 '자존의 공동체'의 한모퉁이나마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그림 창간에 부쳐...

메마른 정토에 감로수를 한모금 머금은 듯
정신이 맑아짐은 탁한 기류 탓인가?

사람이 사는 곳에 사회가 있고 문화가 있으며 문화가 있는 곳에 발전이 있게 마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귀하게 태어나서 올바르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진실하게 일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참다운 인간의 가치를 구현해 보고자 노력합니다. 즉, 서로가 인권을 존중하며 남을 속이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않는, 인간을 위한 참다운 사회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사회는 원시사회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불행히도 외세의 침략과 조국분단이라는 민족의 수난을 거쳐 온 우리의 민족성과 문화는 끊임없는 서구세력의 문화적 침투로 인하여 민족자아의 혼돈과 기형문화의 만연이라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터전인 안양에는 수 많은 계층의 대중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산업의 번성으로 중상류층의 생활은 갈수록 소비지향적 향락을 추구하며, 물질적 비만성만이 삶의 척도인 양 탐욕의 불길은 끝없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서민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늘 생활에 허덕이면서 소비문화에 휩쓸려 자기생활문화를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갈 의식은 마비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감히 문자를 쓰자면 '문화적 공간의 부재로 인한 정신 결핍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딜가나 지역사회의 종교인 내지 문화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서민 대중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활동하는 종교 및 문화인은 극히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지역사회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디 제대로 갖추어진 문화 전시공간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한 두 건물 백화점 꼭대기에 서울의 삼류전시관 만도 못한 공간이 고작입니다. 층층이 눈이 부시도록 호화찬란한 온갖 생활용품 속에서 문화적 향취를 어떻게 음미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이 오른 열계단 보다 내가 오른 한계단이 중요하듯이 무엇인가 우리의 것을 찾아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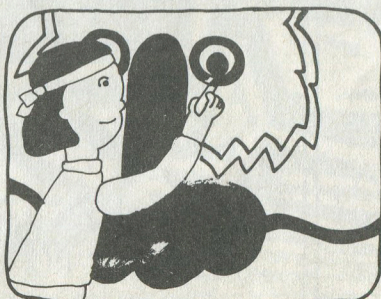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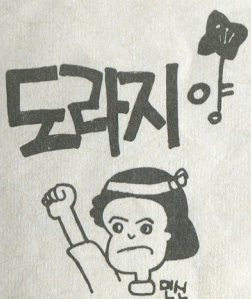
이에 즈음하여 안양지역에 뜻있는 사람이 모여 그림사랑동우회 "우리그림"을 창립하였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 작가들이 뜻을 모아, 민족의 흐름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것을 찾아서 재구성하며, 그러한 바탕 위에 제 삼의 창출을 잉태하고자 모인 것입니다.

우리그림의 취지는 안양지역 미술문화 풍토를 새롭게 이끌어 우리의 토양에 뿌리내린 참된 우리의 문화를 이룩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이제 발간을 시작하는 우리그림의 회보는 앞으로 미술문화에 대한 제반 조사 및 연구, 그리고 미술강좌, 전시회 등 모든 홍보활동의 창구역할을 담당함은 물론 새로운 지역문화 정보지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창간호를 펴내는 우리그림의 회원 및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발기인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림사랑동우회 우리그림 대표 홍 대 봉



근로자 미술교실을 마치며

지난 한해 동안 근로자회관에서는 주1회 2시간씩, 10회를 1기로 하여 총 4기의 미술교실이 진행되었다. 이에 그동안의 미술교실의 진행과 성과를 정리하여 앞으로의 대중미술강좌의 방향성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미술교실은 소비지향적 대중문화에 의해 잠재워진 자기표현능력을 되찾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끼리의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정해져있는 짧은 기간안에 그것을 이루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참가인원도 각 기마다 평균 15명 미만으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5~6명에 불과하였다

그동안 만들어진 작품수를 보면 판화 60여점, 공동판화 2점, 공동결개그림 1점, 깃발그림 및 만장 6점, 개인소장 민화가 다수있으며 카드, 달력 등도 제작되었다 전시 횟수는 졸업전시회 4회, 노동문화제 판화전, 안산 구 속 노동자를 위한 기금마련 판화전 우리그림 창립기획전 등 10회의 전시회를 가졌다.

제4기 미술교실을 예로 들어 미술교실의 구체적인 진행방식을 정리해 본다.

첫째날은 '난장뜨기'로 자신의 별명, 장단점, 살아온 이야기 등을 그림을 통하여 소개하는 자화상그리기를 하고, 마을을 나누어 소망도를 그리고 고사를 지내며, 마을별 장기자랑을 함으로써 그림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 서로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둘째날부터는 민화의 기초선 치기, 쉬운 얼굴 그리기, 계층별 얼굴그리기, 몸동작 그리기 등 손질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순서를 4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안양독서회 소모임특강

안양독서회에서는 그간의 소모임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 각 주제별 소모임을 보다 바람직하게 꾸려가기 위해 지난 12월 27일과 31일, 2회에 걸쳐 소모임특강시간을 마련했다 회원 개개인에게 민주적인 토론과 그것을 통해 각각의 의견들을 올바르게 수렴해나가는 전 과정에 대한 훈련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소모임은 곧 개설될 독서교실과 더불어 안양독서회의 주요 사업공간을 이룬다. 회원을 대상으로 했던 이날 특강에서는 소모임의 의의, 소모임활동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과 자세, 모임운영방식 구체적 사례발표 등이 논의되었다 현재 안양독서회에서 운영, 또는 추진되고 있는 소모임으로는 "실천문학" "고교생문학모임" "교육문제" "여성문제" "한국 근·현대사"가 있다 관심있는 분들은 본회 사무실 0343·46-8929)로 연락바란다

안양지역 공정선거감시단 활동보고대회

온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작년 12월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공정선거감시활동을 했던 안양지역의 공정선거감시단이 12·29 활동보고대회를 끝으로 해단하였다. 공정선거감시단은 국민운동본부와 긴밀한 연락체제를 가진 안양지역민주시민, 단체, 학생, 종교인들의 연합모임으로서 12월1일 창단되어 공정선거에 대한 홍보, 선거감시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릴레이 투표, 이중투표, 대리투표 등의 여러가지 부정선거에 의해 비록 우리가 원하던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민주와 자유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열망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새로이 인식하면서 해단식을 마쳤다



◀미술교실 4기에 제작된 달력. 그림은 윤기 순 작 「어린왕자」

각자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여 얼굴의 전형을 잡아나갔던 계층별 전형잡기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중간의 4주는 주로 판화실기에 몰두하여 밑그림을 그려서 파고, 찍고, 보고, 평가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소재는 전통민화자료를 통한 창작과 주변 생활 이야기 등으로 개인당 2점의 작품을 만들었다 마지막 4주 동안은 자신이 만든 판화작품을 가지고 카드, 책

받침 손수건 등을 만들고, 달력으로 꾸며 서로의 작품을 나누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평가해보면, 첫째로 준비 과정에서의 기획 및 교안의 소홀로 즉흥적인 대응이 많았으며, 둘째는 시간이 너무 짧고, 공백이 길어서 신명을 이어가기가 힘들었고, 세째는 장소의 잦은 이동으로 분위기를 모아나가기 힘들었다

앞으로 진행자는 좀 더 치밀한 기획과 프로그램, 시간 및 공간적 여건을 올바르게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 스스로가 그들의 정서에 맞는 생각과 모습을 표현해 내는 동시에 자신의 기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라 하겠다.

그간 미술교실에서 제작된 판화작품들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며 화집으로 만들 계획이다

안양민요 연구회 연행부원 모집

민족의 노래, 민중의 노래를 창작·보급하여 안양지역의 지역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민요연구회에서는 연행활동을 함께할 연행부원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행부원이 되시면 연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도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역량을 바탕으로 민요의날, 강습 등을 민요연구회의 회원들과 함께 꾸며가게 되십니다 예술문화활동(민요, 풍물, 춤, 연극등)에 경험 소질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계신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연락처 안양민요연구회 (전화 48-1095)

안양지역 대학생 연합회 발족

안양지역 대학생 연합회는 안양지역내의 문화 정치 경제적모순등 기타 제반 모순을 정확한 인식하에 극복해 나가며 지역사회에서의 대학문화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지역내의 대학생들이 모인단체이다 12월30일 발족식을 갖고 임시 집행부를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창립총회를 2월중에 개최하므로써 안양지역 대학생들의 실체적인 구심체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안대련은 계속적인, 홍보와 의견수렴을 통해 안양지역 대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건인해 내며 실질적인 대중의 이익도모를 위해일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1월말경에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 카페를 하며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모아 행동방향성과 사업을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연락처 48-2180

독자참여 우리그림의 회보제작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내용 : 만화, 그림, 알리고 싶은 지역소식, 시국에 관한 견해, 미술론, 전시평 등 우리그림」지에 적합한 모든 원고

연락처 : 우리그림 사무실 (전화 44-8942) 마감 매달 5일



올바른 책은
바른 생각과 삶을 향해
열린 창입니다

- 인문·사회과학·최신간 서적
중고참고서 헌책·새책
- 싸고 깨끗한 복사 축소·확대
- 전화/ 3-1584
대표/한균희
- 위치/ 안양여고 사거리

- 그림 전시 판매
- 전문미술 재료
- 액자맞춤

안양화방

전문미술재료점
미술에 필요한 재료는 모두
갖다 놓았습니다
전화 3 1541
대표 / 송성강

위치/ 중앙지하상가내

입시전문



미술학원

- 동양화·서양화·조소 디자인
- 중고생 취미반 모집
전화 / 44 9367
원장 박신자 홍대 조소과 졸)
- 위치/ 중앙시장 내



- 우리그림에서는 판화반 만화반 사진반 민화반원을 모집합니다
- 그림을 배우고 싶거나 기능을 발전·심화시키고 싶으신 분은 우리 그림과 의논을 하시면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체로서 우리그림에 강좌·강습을 특별요청하시면 상호협의를 하에 적극 지원해 드립니다
- 그림을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은 우리그림에 오시면 언제든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8-4424
(결혼 생일 회갑 축하선물용)

제1회 안양 시민미술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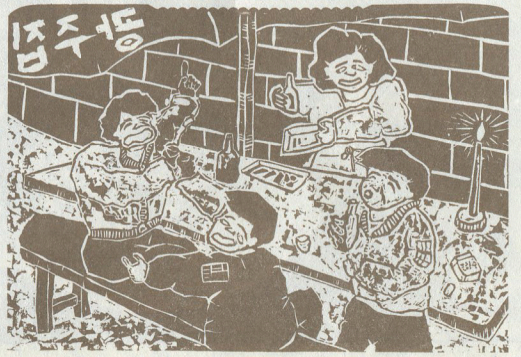
탁아소의 점심시간 이경옥

엄마아빠가 모두 일하러 나가시고 아이들만 남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과 지내면서 점심도 먹고 낮잠도 재운다. 아이들의 즐거운 모습이 좋고 소중하다.



새날을 위하여 오경덕

어머니가 아이를, 아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순수함으로 우리를 서로에게 위안이 되며, 손내미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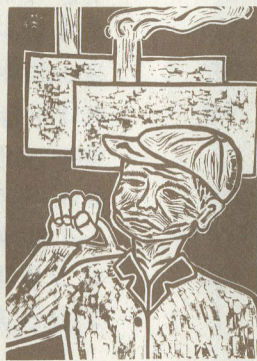
포장마차 김명수

공장일을 마치고 공장주변 포장마차에 들렀다. 매일 외상값 갚으라고 야단이지만 반갑게 맞아주는 아줌마의 인정이 넘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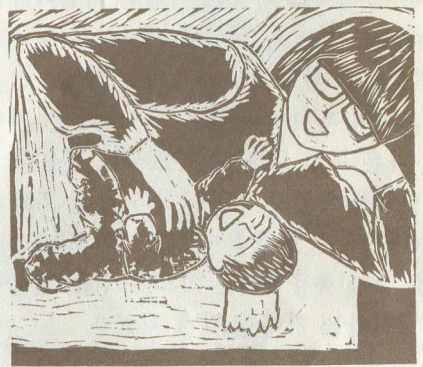
결혼식날 임현순

결혼식 웨딩마치가 울리고 두사람의 희망찬 내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표정을 파내는데 작품제작시간의 반이 걸렸는데 찍어 보니 훨씬 잘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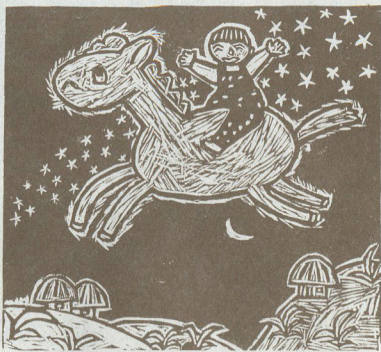
막일꾼 엄경자

먼지 자욱히 휘날리는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어둠이 짙차는 줄 모르게 일하다 작업시간 끝내는 경중에 몸을 추수려 밖으로 나오면 잊었던 피로가 함박 달려들어 먼지 쌓인 눈두렁을 더욱 무겁게 한다.



귀여운 은별이 이승래

은별이를 재워놓고 판화를 새벽까지 판다. 이것저것 잡생각들이 조각칼로 판을 파내면서 없어지고 오직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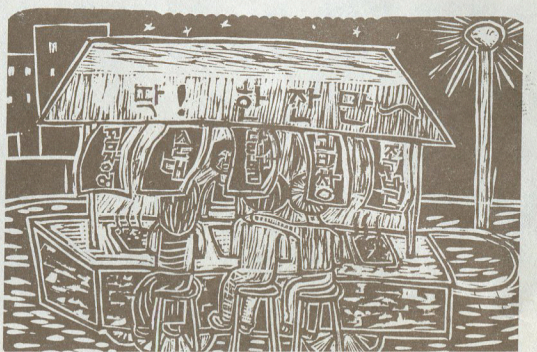
은하수 따라 이경애

어린이들의 정서를 상상으로 표현하였다. 흑백의 대비와 짜임새가 어린이의 꿈과 희망에 대한 표현으로 잘 나타내진다.



즐거운 학교생활 이호규

노는시간에 앞어나와 장난하는 학생들이다. 조각칼의 기법이 다양하게 사용하여 즐겁고 활달한 분위기를 잘 표현하였다.



딱! 한잔만 이소영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포장마차에 들렀다. 서로의 이야기속에서 그리고 일을 함께하면서 제일 친해졌다. 기쁨이나 슬픔을 나누며 산다는것이 큰 기쁨이다.



행상길 이소영

골목길을 따라 이리저리 물건을 팔러다닌다. 가끔 소리도 질러보고, 이집저집 드나들며 좀 쉬기도 한다. 따라가기 싫어하는 어린것을 풍선을 사주며 데리고 나가지만 종일 걸어야 하니 안스럽다.



“같이 가” 정유정

아직 쌀쌀한 봄날 작은 우산은 둘이 쓰기에도 비좁다. 그래도 아이들은 친구가 비맞게 할수는 없는가 보다. 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저렇게 어려움을 나눌수 있을까.



분단의 아픔 임용덕

한나라에 같이 살면서도 만나지 못했던 부모형제를 이제서야 만났다. 보고 싶었던 애꿎는 간절함에 부들켜 안고 울었다. 역세계 끌어안은 할머니 손의 표정이 잘되었다.



우리 마음의 초록마을

임현순 (주부)

부와 힘에 밀려 없는 자들이 한 마을을 이루고 산다는 복음자리에 현장을 케치를 하러 갔다. 어렸을적 살던 대전 피난민 판자촌을 생각하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크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름대로 가난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돌아올 때까지 아무 설명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본 복음자리 마을은 가난한 마을이라는 것을 떠나 철거를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단결심으로 마을을 이루어 내집 내가 설 수 있는 보금자리를 가꾼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싶다. 그 과정 중에는 피눈물 나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랐겠지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얻은 이웃간의 사랑과 신뢰는 다른 무엇 보다 귀한 보물일 것이다.

마을을 둘러보며 작은 공간이나마 푸른 희망의 빛을 발산하는 꽃나무들이 있었으면 하는 작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작은 자리에서 젊은이들의 소박한 전통 결혼식을 보며 복음자리는 앞으로 더욱 찬란한 초록빛 희망이 가득한 복된 마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노동자는 한가족

을씨년과 삭막의 고조를 이루고 있는 공장의 모습과 프레스라는 거대한 기계앞에 작게만 보이는 근로자들의 모습은 우리를 슬픔과 분노로 가득차게 했다.

그러나 두시간마다 있다는 10분 간의 휴식시간에 소주와 쥐포로 동료의 생일을 축하하는 근로자들의 모습이 너무도 정겨워 우리는 현장의 미래가 밝아오고 있음을 느꼈다. 몇차례의 쟁의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애쓰고 있다는 노조사무장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추운 겨울에도 전혀되지 않는다는 난방시설과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안전 장치마저 가동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기계에 맡기는 근로자들앞에 우리는 부끄러울 수 밖에 없었다. 현장답사,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되돌아 본다.

기계앞에 작아진 근로자들의 모습을 담으면서 기계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노동자의 모습으로 작아진 그들을 크게 세우고 동료들과의 정겨운 대화를 담은 희망찬 현장을 그렸다.



복음자리 마을을 다녀와서

엄경자(탁아소 봉사자)

지난 해를 받으며 일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어깨는 마을의 분위기만큼이나 무정한 소망이 있다.

양평동, 문래동에서 생활터전이 헐리고 난 뒤 “희망을 잃지 말아야지. 이 어려운 날들을 서로 위로할 수 있게 끝까지 함께 극복해야지” 하는 다짐으로 계속 공동의 감정과 생활감각을 이끌어 내어, 모두가 살만한 마을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마을이 있다기에 찾아갔다.

경기도 부천시 소래읍 신천리 복음자리마을

우리 일행은 함께 보고 느낀 것을 더욱 진밀하게 교류하기 위하여 그 마

을을 찾았다. 처음 도착한 작은 자리 마을회관에서는 매마침 의지 굳은 부부를 탄생시키는 혼례식이 마을 청년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다. 어떤 친구는 그 모습이 우울한 우리 시대에 희망을 볼수 있는 모습이라고 했다. 곧 마을의 친절한 안내자를 따라 130여 세대가 사는 마을을 두루 보러 갔다.

마을 구석진 곳에 세운 공동변소, 그 곁에서 해 지는 줄 모르고 구슬치기에 여념이 없는 아이들의 모습. 그와는 대조적으로 마을회관 앞에서 엮치고 뒤치며 싸우는 어른들은 무슨 이해관계가 얽혔길래 저러실까?

주택 밀집지를 벗어나 뽕뽕 봄바람에 지는 햇살을 받으며 큰길로 나오는데, 빈 리어커를 끌고 마을로 들어서는 부부. 빈 광주리를 이고 어린이의 손목을 잡은 아낙네, 공장 동료인 듯 이야기하며 걷는 청장년들과 마주쳤다. 안식처를 찾아서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에서 피로를 느낄 수 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일터도 이 마을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작은 안타까움이 스친다. 마을 주변은 개발사업을 하느라고 큰 건물들이 마을을 더욱 조이는 듯하고, 공터에서는 계속 철근을 자르고 있다.

“아가씨들 뭐하려고 그러나? 우리들이 양해도 없이 사진을 찍으려하자. 철근을 자르던 아저씨는 “매일 이런 일만하는 가난한 사람을 뭐하려고 찍나 이렇게 저저분하고 부끄러워서.” 하신다. 우리가 몇마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분 가슴에 맺힌 가난의 한은 풀릴 리없다.

복음자리마을에서 돌아온 우리는 곧 각자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공동의 감정을 주체화하여 구도를 잡았다. 그 마을의 내력 즉 과거의 아픔을 그리고, 지금의 마을 또 모두가 살만한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세상도 그려보았다.

시민미술학교를 마치며...

제1회 안양 시민 미술학교는 직업층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미술이론 작품감상 (슬라이드) 현장답사 실기및 공동체놀이 등으로 총10회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미술영역에서 항상 수동적, 감상자적인 자세를 벗어날수 없었던 시민대중이 예술창작과 향유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예술 표현력을 되찾고 이를 통해 자아실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 하에 개설된 이번 시민미술학교에서는 민주적인 질서의식이 존중된 자유토론, 상호교육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관화실기를 통해서 표현에의 자신감을 얻어낼 수 있었으며 현장답사에서는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이웃 사람들의 삶에 대한 애정어린 이해를

하게 되면서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공동벽화 그리기에서는 수강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토론으로 공동체 의식이 심화되는 교육적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극복되어야 할 문제점도 없지 않았다.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의 개발, 진행능력 배양 등의 문제와 축적된 교육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후속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가 주어질 수 있겠다.

앞으로 미술을 통해 자연 및 인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식이 발전되고 삶 속에 실천적으로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미술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과 더불어 보다 더 다양한 생활공간속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 이번 미술학교를 통해 얻은 귀중한 교훈이라 할 수 있겠다.